

빌립보서의 기쁨: 복음 안에서 교제

성경말씀: 빌1:1-6

오늘부터 빌립보서 강해, 바울 서신 중에서 에베소서와 함께 가장 심오한 진리 내포, 짧지만 외울 구절, 적용해야 할 구절이 심히 많다. 서신(편지)이므로 기록 배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
오늘은 전체 설명

<라이프성경사전>: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의 4대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인 본서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저자의 따뜻한 인간미와 풍성하고 깊이 있는 내면의 신앙심으로 가장 잘 승화시킨 책으로 유명하다. 옥중에서 기록된 것으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감사와 찬양, 환희의 기쁨이 넘치게 표현되고 있는 것도 본서신의 장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서신은 그리스도와의 일치와 연합을 이룬 성도들이 내면의 신앙 인격을 고양시킬 수 있는 좋은 지침서라 할 것이다.

본서신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다. 이는 본서신이 이를 직접 증언한다(1:1).

기록 장소와 시기: 본 서신 역시 다른 옥중서신과 마찬가지로 로마 감옥에 있던 2년 기간 중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본서의 기록 시기는 옥중 생활 말기인 62-63년경

빌립보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고난, 죽음에 관한 기사는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다. 하지만 이런 주님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죽음을 신학적으로 가장 잘 해설한 것이 본서신이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시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시고, 심지어는 보통 인간들보다 더 낮고 비천한 삶을 사셨다.” 그 분명한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다. 이는 당시 보통 사람들에게서도 흔치 않는 비참한 죽음이다. 이를 통해 바울은 주님의 겸손과 희생 정신을 가르친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왕좌 오른쪽에 앉게 된 이면에는 이런 주님의 희생과 겸손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바울 역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는 감옥에 갇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옥중에서도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위로하고 권면하며 주안에서 기뻐하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주님의 겸손을 본받으라고 당부한다(2:5). 낮아지지 않고 높아질 수 없으며,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다는 본서신의 핵심 교훈이야말로 하늘 끝까지 높아지려다 수없이 실패하는 현대인들이 다시 한 번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이라 하겠다.

왜 이것을 선택하였나? 일단 서신서를 더 강해하고 싶었다. 나의 책무, 특별히 나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산다. 바울을 보라. 지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4:4,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쁨이 나오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켄달, 파이퍼)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핵심 본질, “어떻게 사는가?”

또한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매우 많다. 외우고 살면 너무 좋은 구절

1:21, 23, 27; 2:3-4; 5-11; 12-13; 3:7-9, 13-14; 20; 4:4, 6-7, 8, 11-13

오용되는 구절도 많다. 4:4의 경우처럼

빌립보서 안에는 적어도 16번이나 기뻐하라는 말이 나온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굉장히 심오하다. 짧지만 강해할 것이 매우 많다. 위어스비, preaching the word 주석 등 중심으로 문맥에 맞게 우리의 필요대로 강해하려 한다. 나와 내 아내 그리고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빌립보서 이해를 위한 배경: 사도행전 15-16장

1차 선교 여행, 안디옥 교회로 돌아옴, 할례 문제, 유대인 율법 규정 문제, 예루살렘 회의,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규정 준수 불필요, 그 뒤 바나바와 헤어지고 실라를 택한 뒤 2차 여행(행15:36-40),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데리고 감(행16:1-5), 바울의 계획: 이전의 도시들을 다니며 성도들을 확고하게 세워야겠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음, 환상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을 봄(행16:6-10). 그래서 유럽으로 들어감. 이때에 누가가 더해짐(16:10).

이로써 유럽에 공식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함

빌립보는 당시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 국제 도로인 에그나티아 도로(Via Egnatia)의 길목에

위치한 교통, 전략 요충지이며, 중근동의 소(小) 로마로 불렸다. 주전 4세기경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이 세움, 터키에서 그리스로 들어가는 길목의 보스푸르스 해협, 이스탄불, 거기서 서쪽으로 300km

바울은 어디서나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 선포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을 세울 만큼의 유대인들이 되지 않음,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인들 모임 발견, 두아디라 시 출신의 자주 장사 루디아에게 복음 선포, 루디아 회심(11-15)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소녀를 고침, 감옥에 갇힘.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함, 지진이 나고 그 뒤 빌립보 감옥의 간수 회심(16:30-31),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 교회 형성, 아마도 이때에 즉 주후 50년경에 빌립보 교회 형성됨(행16:12-40). 아마도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바울에게는 가장 의미 깊은 교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성도들의 따뜻한 마음이 생각남

그래서 바울도 이들을 늘 생각하고 기도함(1:3-5), 복음 안에서 교제

빌립보서의 중요 단어, 교제 3번(1:5; 2:1; 3:10), 단순한 사교가 아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데는 바울과 그곳 성도들의 끈끈한 교감, 사귄이 있었다.

바울의 상태: 로마 감옥, 성도들의 사랑의 선물((4:18, 돈), 에바브로디도가 전달자, 그런데 전달 과정에서 그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살아남(2:25-30), 그가 회복되자 그를 통해 기쁨의 편지를 빌립보에 보냄.

우선 감사 표시, 디모테를 보내려는 의향 표현(2:19-20), 유대주의자들 경고, 견고하게 서라.

이 모든 것의 근거: 복음 안에서의 교제(5), 친밀함

5절의 첫날부터의 의미: 유럽의 첫 번째 교회, 성령님의 인도

1절을 보면 다른 서신과는 달리 사도라는 말이 빠져 있다. 사도는 권위의 말, 이 말을 쓰지 않음

그리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섬기는 자로 표현함, 그리고 디모테를 언급하여 그의 권위를 세움 '종'이라는 말은 주인에게 매인 종을 의미, 즉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 강조, 교회 안에 분열이 있음(4:2-3) 특별히 일을 하다가 자매들 사이에 분열

바울의 강조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1:27). 개인의 삶, 바울의 권고(4:8)

교회로 모일 대의 삶: 한 영과 한마음

구원받아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과 지역 교회는 조금 다르다.

지역 교회는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 진술문이 있다. 교회의 철학, 문화, 목적이 다르다.

이렇게 같은 영으로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한마음이 필요하다. 한 생각이 필요하다.

그 한마음, 한 생각이 무엇이나, 그리스도의 마음(생각): 2장에서 충분히 설명한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들의 구원을 일하여 밖으로 드러내야 한다(2:12-13).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사는 바로 그리스도, 37회

즉 빌립보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가장 잘 보여 준다. 즉 그리스도 중심의 서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복음의 교제 안에 거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기쁨(히12:2)

1:4, 18, 25, 2:2, 17-18, 28-29, 3:1, 4:4, 10 등의 기쁨, 기뻐하라.

여기의 기쁨은 그리스도의 기쁨,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특히 고통과 고난 속에서 흘러넘치는 기쁨

21세기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기쁨

이러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 빌립보서 상세 설명 필요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성령 충만으로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

예수님의 말씀(요:16-32-33)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마28:20).